



해질녘 수심만 마리의 가창오리떼가 하늘 위에서 펼치는 군무는 하트, 용틀임, 패배기 모양 등 기묘모양한 춤사위로 황홀경을 연출한다. (서천군청 제공)

가창오리떼 화려한 群舞 “예술이 따로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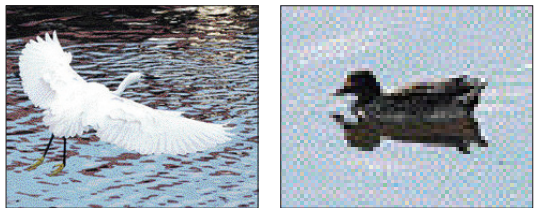
서천 탐조여행

예년보다 첫 눈이 한 달가량 빨리 내려 겨울이 눈 앞에 딱 하니 버티고 있다. 만추인가 싶더니 어느새 겨울에 들어서 옷깃을 여미고 따뜻한 곳을 찾아들게 한다. 그렇다고 벌써부터 여행의 발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 서걱대는 갈대숲을 거닐고, 떼 지어 날아오는 철새들의 비상을 만날 수 있는 서천은 명품 겨울여행지임에 틀림없다. 충남 서천의 40만 춤꾼들의 퍼포먼스를 관람하러 가보자.

천수만 일대 겨울 희귀새



노랑부리저어새



쇠백로

쇠오리



흑꼬리도요

수만 마리 철새 하늘 뒤덮어
노을·구름과 어우러져 장관



희귀새 감상 또 하나의 재미

자연은 속임이 없다. 때를 알고 찾아온 겨울철새들이 천수만을 가득 채운다. 새들은 천수만에 먹이가 되는 낱알경이 많다는 것을 안다. 청둥오리, 흑두루미, 황새, 왜가리, 노랑부리저어새, 해오라기, 가창오리 등 겨울 흑한을 피해 이곳을 찾아오는 철새는 300여종. 하루에 관찰되는 개체수만 40여만 마리다. 이중 가창오리는 전세계 개체수의 90%에 해당하는 30여만마리가 날아온다. 천수만이 겨울철새 도래지로 변모한 것은 이 일대 갯벌 1만5천ha가 현대건설에 의해 농경지로 간척되면서부터다. 천수만은 기나긴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서해의 넓은 갯벌이 한쪽은 간월호와 부남호라는 큰 민물호수가 있다. 천수만에서는 사철 새들을 볼 수 있지만 대규모 영농으로 발생하는 낙곡과 갯벌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등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면서 철새들의 낙원으로 변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 습지보호단체인 웨트랜드 인터내셔널로부터 ‘동아시아 오리·기러기 네트워크’로 공인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곳을 찾은 가창오리떼 외에도 기러기, 청둥오리, 저어새등을 합쳐 40여만마리의 철새가 매년 이곳에서 겨울을 난다. 가창오리는 천수만에서 쉬다 좀더 따뜻한 금강 하구나 해남 고천암호로 이동할 것이다. 가창오리는 유독 겁이 많다. 낮에는 적들의 근접을 피해 해미천 한가운데 모여 잠을 자고는 다른 생명들이 잠을 자는 밤에 일어나 먹이를 찾아 다닌다. 햇덩이가 끝 숨을 몰아 쉬고 붉게 타오르자 세떼가 깨어나기 시작한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수면 위로 이동하는 속도에 탄력이 붙는다. 해가 지고 하늘에 시뻘건 노을이 번져 오를 때쯤 검은 그림자는 해미천 위로 솟아 오른다. 먼저 잠을 깬 가창오리무리들이 무리위를 맴도는 것이다. 좀 더 어둠을 기다리다 붉은 기운마저 사라져 갈 무렵 비상이 시작된다. 가창오리떼가 서로의 두려움을 달래느라 힘차게 울어댄다. 수심만 마리의 가창오리떼가 군무와 함께 질러대는 환한 함창으로 인해 호수는 거대한 공연장으로 변해버린다. 때로 날아오른 가창오리들은 하늘 위에서 마음껏 춤판을 벌인다. 황홀하다. 일사불란하게 펼치는 카드섹션같은 모양에서 하트, 패배기, 용틀임, 모양등 기묘

묘한 춤사위가 펼쳐진다. 노을이 어둠에 묻히면 화려한 춤관이 끝나고 가창오리떼는 먹이를 찾아 광활한 들판으로 날아가버린다. 해질녘의 가창오리떼의 공연을 보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새벽에는 간월호에 모여들기도 한다. 어둠이 열리면서 지난 밤 배를 채운 가창오리떼가 간월호에 찾아든다. 가창오리떼의 화려한 춤판을 감상하는 것이 탐조여행의 백미이지만 이곳에서 만나는 희귀종의 새를 감상하는 것은 또 하나의 재미다. 전세계적으로 800마리 밖에 없다는 노랑부리저어새는 주로 천수만 해미천에서 겨울을 난다. 와룡천을 가로지르는 일명 ‘룻구멍다리’ 인근에서는 백로와 논병아리, 쇠백로, 쇠오리, 청둥오리, 흑꼬리도요 등도 만날 수 있다. 철새를 좀더 쉽게 만나려면 금강하구연의 철새 탐조대를 찾아가는 것이 좋지만 현재 공사중으로 탐조대 조망은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만 철새 탐조에는 이상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철새 탐조 여행은 따뜻한 옷과 망원경은 꼭 챙겨 가야 한다. 인근 갈대밭 방문도 여행객들이 누리는 호사지만 역시 이곳도 공사중이어서 낭만적인 산책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둘러 볼 수는 있다. 문의, 서천군청 문화관광과 : (041)950-4224.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백암온천과 신비의 비경인성

울릉도 독도 2박3일 매주 토요일 출발 1인 26만원

세끼	세끼	세끼
<p>문주-백암(한방사양)</p> <p>12:00 백암온천 13:00 백암(한방사양) 14:00 백암(한방사양) 15:00 백암(한방사양) 16:00 백암(한방사양) 17:00 백암(한방사양)</p>	<p>포항-울릉도(한방사양)</p> <p>12:00 포항(한방사양) 13:00 포항(한방사양) 14:00 포항(한방사양) 15:00 포항(한방사양) 16:00 포항(한방사양) 17:00 포항(한방사양)</p>	<p>18:00-19:00-20:00-21:00(한방사양)</p> <p>12:00 울릉도(한방사양) 13:00 울릉도(한방사양) 14:00 울릉도(한방사양) 15:00 울릉도(한방사양) 16:00 울릉도(한방사양) 17:00 울릉도(한방사양)</p>

비니산 항공관광여행사

보양음료 숙취해소

간·담낭기능보호/메탄소트레스완소

아직도, 힘들게 보약을 달아 드십니까?

코모닝865는 날아노소 드물약 보양음료입니다.

4-관영역리점 오픈 영업시간연말

(주)코모닝865 서울·경기지역 062-287-7753
상남동구부본점 011-6612-8700